

# ‘김영란법’의 역설... 백화점 추석선물 불티

### “시행전 선물하자” 굴비 등 매출 전년비 최고 62% ↑

### 상품권 판매도 두자릿수 성장... 대형마트도 함박웃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추석선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법 시행 전, 사실상 마지막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눈치보지 말고 선물하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백화점별 품목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20~100% 신장률을 보이고 있고, 고액 상품권도 잘나가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선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김영란법의 역설인 셈이다.

반면 저가 선물세트를 주로 파는 대형마트의 매출이 경종 뛰었고 예뻐한 한우만 달 팔린 대신, 수입고기의 매출만 늘어나고 있다.

7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달 29

일~6일까지 지난해 대비 장르별 추석 상품 신장률을 보면 ▲건강 38% ▲굴비 4% ▲해산물 40% ▲청과 16%, ▲건과 31% 등 대체적으로 상승했다.

전반적인 추석 선물 세트는 전년 대비 4% 신장을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 진행된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중간 실적을 확인한 결과, 전년 같은 판매기간에 비해 약 20% 신장했다.

상품권별 판매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광주지역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끈 선물세트는 굴비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굴비 세트는 62%가 신장했다.

뒤를 이어 건강식품 선물세트가 약 50% 매출 신장률을 보였으며, 와인비롯한 주류 상품군에서 약 20% 이상 매출이 올랐다. 과일세트의 경우 가격 인상 영향으로 9% 미만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 한 백화점 관계자는 “예초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추석 선물세트 판매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판매가 잘되고 있고, 지역 기업체들도 최근 선물 구입에 나서면서 전체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우의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았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정육은 매출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지만 전년 대비 -20% 역신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입육 매출 외형은 작지만 전년 대비 100% 신장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정육세트는 -5%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는 김영란법을 의식한 소비자들이 고가의 정육 대신 부담

이 다소 낮은 굴비를 대체상품으로 선택하려는 심리적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가 선물세트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대형마트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24일까지 진행된 사전예약판매와 이후 9월6일까지 세트판매 분석결과 2~3만원대 통조림, 조미료 세트가 인기였으며 추석선물세트판매는 전년에 비해 3.8% 신장했다. 특히 1~3만원대의 커피, 조미료, 통조림세트들은 최근 3년 동안 신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품구성수도 10% 이상 증가했다.

백화점상품권의 판매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일부 상품권 구입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면서 백화점별로 두 자리 수 이상 매출이 신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61.88 (-4.65)
- ↓ 금리 (국고채 3년) 1.28% (-0.02)
- ↓ 코스닥 672.49 (-6.77)
- ↓ 환율 (USD) 1090.00원 (-15.20)



7일 김중용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공장장(왼쪽에서 세번째)과 박주기 기아차 노동조합 광주지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김상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천수 삼촌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혜옥 새날 소장에 전통시장 상품권 3300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 기아차 광주공장, 명절 앞 사랑 나눔

### 복지시설 45곳에 3300만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사가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문화를 실천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7일 접견실에서 김중용 공장장과 박주기 노조지회장, 김상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천수 삼촌종합사회복지관장, 김혜옥 새날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3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상품권은 기아차 광주공장 자체결연을 맺고 있는 45개 복지시설에 주어진다. 기아차는 상품권이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의 추석 준비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전통시장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올해 저소득층 청소년 150여명에게 교복구입비 3000만 원, 소외계층 생애체험을 위한 남도 생태나누리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

## 광산업진흥회 印尼 광통신 시장 진출

### 자카르타 국제엑스포서 1500만달러 계약·168건 상담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지난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엑스포에서 열린 광통신 전문 전시회 ‘커뮤니 인도네시아 (Communic Indonesia 2016)’에 광통신 관련 회사 등과 함께 공동관을 꾸려 150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 기간 진행된 상담 건수는 168건으로, 총 3733만달러 규모다. 광주 대표 광통신케이블 업체 글로벌광통신(주(대표 박인철)은 인도네시아 통신 국영기업 PT INTI와 1000만달러 수출계약을 맺었으며 PT Relindo Utama와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3자간 500만달러의 광통신 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저장공급장치를 선보인 이디에스씨는 인도네시아 통신 전

력 공급업체 PT Jaladri와 물품 납품과 기술 협력을, 피큐브에서는 ‘의료 헬싱기’로 인도네시아 의료협회 PT Medtek과 각각 제품 기술교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러한 성과는 광주시와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마케팅 시장 이해와 네트워크 확보 등의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광주지역 광통신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시장진출 의지에 부응하고자 그동안 수차례 지원해왔다”며 “이번 성과를 맺었으며 끝까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산단공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광주지역 광산업체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은행 김한 행장(왼쪽부터 세번째)과 광은리더스클럽 회장 및 회원들이 추석을 맞아 서구 무지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들을 위한 대형에어컨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광주은행 제공)

## 인구 절반 수도권 거주...주택 10채중 6채는 아파트

### 5년 새 주택 광주 9%·전남 7.2% ↑...광주 아파트 비율 77% 최고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주택(빈집 포함)은 총 1636만7006호이며 이 중 아파트가 980만6062호(59.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주택 10채 중 6채는 아파트인 셈이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택 중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 주택은 1218만9501호(74.5%)로 집계됐다. 단독 주택은 397

만3961호(24.3%)였다. 빈집도 106만9000호로 5년 전 81만9000호보다 25만 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742만9000호가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주택의 45.4%에 해당하는 수치다. 두 집 중 하나는 수도권에 있다는 뜻이다.

지난 5년 새 주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도 경기도였다. 47만호가 늘었다. 서울은 25만호, 부산은 12만6000호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주택 증감률을 따져 보면

제주가 20.8%로 가장 높았고 경기(14.6%), 인천(14.2%), 울산(13.4%), 부산(12.2%), 대전(10.8%), 서울(9.8%), 경남(9.4%), 충북(9.1%), 광주(9.0%), 전남(7.2%)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981만호로, 전체의 59.9%에 달했다.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7.7%에서 2000년 47.8%, 2005년 52.7%, 2010년 57.9%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아파트 비율만 따로 놓고 보면 광주(77.4%)가 최고였고 세종(76.8%)이 뒤를 이었다. 제주(32.0%)가 최저였다.

## 광주은행 리더스클럽 아동센터 생필품 전달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7일 오전 추석 명절을 맞이해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인 광은리더스클럽(회장 김홍균) 회원들의 이웃사랑의 뜻을 모아 사랑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광주은행 김한 은행장과 광은리더스클럽 김홍균 회장을 비롯한 광은리더스클럽 회장단은 북구 ‘꿈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서구 ‘무지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대형에어컨, 학습용PC, 소파 및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광은리더스클럽 김홍균 중앙회장(남선산업 회장)은 “항상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등 상생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연립·다세대주택 비율은 서울(27.6%), 인천(27.0%), 제주(22.7%) 순으로 높았고 세종(3.1%)과 전남(3.2%)이 낮았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광신대학교

다같이 · 多  
즐겁게 · 樂  
모이자 · 房

청(靑)소년 예비전문가를 위한

**교육일시**

- ▶ 오픈강의(1회) : 2016년 9월 24일(토) 14:00 ~
-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2016년 10월 8일(토) ~ 10월 29(토) 매주 토요일 14:00 ~

**장 소** 광신대학교 국제관 1층 국제회의실

**수강료** 무료

**신청문의**

- ▶ 오픈강의(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학생상담센터 062)605-0903 E-mail : flyhigh132@naver.com
-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평생교육원 062)605-1112, 1063

**강의일정**

- ▶ 오픈강의 : 2016. 9. 24(토) 14:00 ~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3시간) 수료증 발급

**청다락방**

회기	일정	주제	강사
1	10월 8일	청소년정서코칭	조영미
2	10월 15일	청소년은 꿈쟁이 & 오독이!	안창현
3	10월 22일	청소년 게임 놀이치료	임은경
4	10월 29일	미술치료의 실제	이정은

▶ 주 최 : 광신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 청소년상담지도학과  
▶ 주 관 :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5분 이상 물로 가압해도 물이 새지 않고 먼저 물이끼리는 실험 동영상 시청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 찬 엔디나외의 클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댕다구요? 20년을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목문화센터 옥상시공    시공사례    상명대학교/광명군보건의료원/대전대학교/태백시보건의료원/성서대학교/서원대학교/강화군청/인제군청/부천소방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